

WWW.GONGJU.GO.KR

# 흥미진진 공주

2025년 4월호



공산성 광복루 | 금성동 2

# 의회 소식

## 제257회 임시회 개최



공주시의회(의장 임달희)가 2월 24일부터 3월 7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57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포함한 조례안 등 27건의 안건 처리하고, 지방의회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등 3건의 건의안과 신계룡-북천안 및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설치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또 2025년도 상반기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했다.

주요 일정으로는 ▲2월 24일 제1차 본회의 ▲2월 25일 산업건설위원회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업무보고 청취 ▲3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 ▲3월 5일 행정복지위원회 ▲3월 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3월 7일 제5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폐회했다.

임달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업무계획을 꼼꼼히 살펴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되도록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2025년이 공주시의 변화와 도약의 해가 되는 꿈을 품고,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달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업무계획을 꼼꼼히 살펴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되도록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2025년이 공주시의 변화와 도약의 해가 되는 꿈을 품고,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제257회 임시회 이모저모



의회운영위원회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처리



행정복지위원회

2025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안 등 8건 처리



산업건설위원회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7건 처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 공주 알밤박물관 건립 필요성과 방향성 제안

공주시의회 의원 송영월



공주시는 예로부터 ‘알밤의 고장’으로 불리며, 품질 좋은 알밤 생산지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특히 공주 밤은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통해 지역 특산물로서의 가치를 공고히 해왔으며, 매년 열리는 겨울공주 군밤축제는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주의 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문화적·교육적 기반 시설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공주 알밤박물관’의 건립 필요성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안하고자 한다.

### 첫째, 공주 알밤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할 필요성

알밤은 단순한 농산물이 아니다. 공주 알밤은 우리 지역의 자연환경, 농업기술, 그리고 지역민의 삶과 깊이 연결돼 있다. 심지어 백제시대 유적에서도 밤이 발굴될 정도로 알밤은 공주의 역사적 유산이기도 하다. 공주 알밤박물관은 이러한 유산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전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알밤의 재배 역사, 생산 과정, 유래, 전통문화 등을 보존해 공주의 정체성과 역사적 자긍심을 미래 세대에 전달하는 소중한 공간이 될 것이다.

### 둘째, 관광자원으로서의 잠재력

공주 알밤박물관은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체험 프로그램과 연계된 복합 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알밤 가공 체험, 전통 음식 만들기, 밤나무 숲 투어와 같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숙박, 음식, 지역 상권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일본 돗토리현 구라요시 시에는 일본에서 유일한 배 박물관인 ‘20세기 배 박물관’이 있다. 돗토리현은 일본의 대표적인 배 생산지로 20세기 배 박물관을 통해 전 세계 배의 역사, 생산 과정, 관련 문화 등을 전시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매년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또한 기념관 내 매점에서는 배

소프트 아이스크림 등 배를 활용한 다양한 디저트를 맛볼 수 있다. 이곳은 단순히 농산물을 전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농업과 관광산업이 융합된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공주 알밤박물관 역시 공주 알밤을 중심으로 한 독창적인 관광 콘텐츠를 개발함으로써 공주시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 셋째, 지역 농가와의 상생 효과

공주 알밤박물관은 지역 농가의 생산품을 전시·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다. 공주 알밤을 활용한 가공품의 개발과 홍보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와 판로 확대에 이어질 수 있다. 일본 20세기 배 박물관의 경우, 지역 농가에서 생산된 신선한 배와 가공품을 직접 체험, 판매함으로써 농가와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공주 알밤박물관에서도 이와 같은 성공적인 협력 모델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 넷째, 교육적 가치 실현

공주 알밤박물관은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농업과 자연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속 가능한 환경과 농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체험 학습 프로그램, 생태 교육 등을 통해 공주 알밤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지역민의 자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공주 알밤박물관은 공주시가 가진 천혜의 자연 자원과 역사적·문화적 자산을 보존하고 미래로 연결하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것이다. 공주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공주의 정체성을 대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이 중요한 프로젝트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한다.

## 의회 소식

# 겨울공주 군밤축제 성공을 넘어 2028 국제 밤산업 박람회로!

공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권경운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온 겨울공주 군밤축제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맛있는 공주 군밤을 맛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장작불 위에서 노릇하게 익어가는 군밤 냄새와 즐거운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듯하다.

공주 밤은 조선시대 임금님께 진상될 정도로 그 품질과 맛이 뛰어나며 공주시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알밤특구’로 지정될 만큼 자부심을 가질 만한 공주의 특산물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품질이라 해도 직접 맛보는 것만큼 효과적인 홍보는 없을 것이다. 올해 겨울공주 군밤축제에는 무려 21만 5천명의 관람객이 공주를 찾아 공주 밤의 진정한 가치를 몸소 경험했다.

이러한 관심은 지역 농가에도 큰 힘이 됐다. 축제장에서 맛본 공주 밤을 잊지 못한 관광객들이 앞으로도 공주 밤을 찾게 될 가능성이 높아져 이는 장기적으로 밤 재배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질 것이다.

축제와 지역 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이다. 뿐만 아니라 축제를 찾은 사람들과 함께 개최된 ‘2025 대한민국 밤산업 박람회’에서 공주 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고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를 통해 단순히 즐기는 축제를 넘어 배움과 경험이 함께하는 의미 있는 행사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특히 겨울방학을 맞아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축제로 입소문이 나면서 눈썰매 타기에 추운 줄 모르고 노는 아이들, 아이들 대신 알밤을 굽느라 여념이 없는 부모들이 많았고 반려동물과 함께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 등 최근 여행 트렌드에 맞춘 ‘반려동물 친화형 축제’로서의 가능성도 엿볼 수 있었다.

반면, 축제장 주변 교통 혼잡 문제 등 아쉬운 점도 있었다. 특히, 가장 많이 지적된 부분이 바로 주차 문제였다. 축제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주차 공간이 부족해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았다. 앞으로는 보다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과 대중교통 활용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군밤을 굽는 과정에서 밤이 튀거나 뜨거운 열기가 발생하는 등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대비하여 안전 요원의 배치를 더욱 강화하고 군밤 굽기 체험 구역에서의 안전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도 앞으로 진행될 군밤 축제에서는 먹거리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 친환경 축제로 만들어가는 등 더욱 완성도 높은 축제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공주시는 2028년 ‘국제 밤산업 박람회’라는 더 큰 도전을 앞두고 있다. 공주 밤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번 축제의 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군밤 축제와 대한민국 밤산업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공주 밤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다가올 2028년 국제 밤산업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공주교육대 관사 부지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후 시민 품으로

공주시의회 부의장  
이용성



공주시보건소와 공주세무서 중간에 위치한 왕도심 지역이자, 중학동 교대 관사 부지에 가칭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해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자는 주제로 제안한다.

그동안 지역주민들로부터 관사 철거 이후 해당 부지가 장기간 방치돼 부지 활용방안을 고려해 달라는 건의 등 부지 활용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이와 관련해 권성룡 교대 총장님과 면담을 통해 교대 학생들과 공주 시민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제안을 했고 교대총장도 흔쾌히 수락했었다.

그렇게 총장과 교대와의 상생 방안을 고민하던 찰나 교대 관사 부지는 최근일 기준 약 한 달 반 이전인 2025년 1월 22일에 교육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소유권이 변동됐다. 현재 상황은 국유지이며 지목은 대지, 면적은 1,663㎡로 약 530평이다. 해당 부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캠코는 공공지원 부문으로 국·공유재산 개발과 유희 국유재산 활용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해당 부지를 공주시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재산을 목적으로 하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 처분의 방법 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주시가 취득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매수신청을 해야 한다.

본 의원이 제안한 가칭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의 기능을 한다. 다른 동의 사례를 찾아보았다. 현재 주관 부서 평생학습과와 협조부서는 교육체육과, 문화예술과이며 신관동 (구) KBS 방송국 부지에 복합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해 올해 개관 예정이다. 센터 개관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는 청소년 및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문화·복지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추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시설은 청소년 수련관, 평생학습관, 진로교육 센터, 생활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작은 도서관 등 6개다.

옥룡동도 마찬가지다. 국비와 시비를 들여 공동체 활력 플러스 센터를 조성하고 있다. 지역공동체가 자생적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관계망을 구축하고 컨설팅 지원까지 할 수 있는 공동의 공유공간을 건설하는 것이다. 아울러 본관과 별관을 나누어 활력 지원센터, 교육실, 미디어 창작실, 공유 오피스와 창업비즈니스 공간, 공유주방의 기능까지 더했다

행정의 올바른 방향 중 하나는 “한정된 공공의 자원을 올바르게 배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한정된 공공자원 중에서도 공공건축물의 공간은 ‘시민들께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도록 우리는 함께 노력해야 한다.

중학동 초도순방 때 건의 사안 중 하나였던 공유 오피스의 성격을 가진 공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커지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방향성과 사업의 수행에 따른 필요 공간, 공주시 새마을 중에서도 열악한 환경과 소수 인원으로 봉사의 일당백 역할을 해내는 중학동 새마을 회원들이 꼭 필요로 하는 공유주방, 지역주민이라면 응당 누려야 할 기본적인 복지와 왕도심 생활에서의 유의미한 공동가치의 방향성 제시까지 공주시장과 관계 공무원분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한다. 본 의원도 함께 힘을 보태겠다.

왕도심의 중심, 중학동이 품고 있는 교대 관사 부지에 시민의 행복누림을 위한 가칭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추진해 공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해 본다.